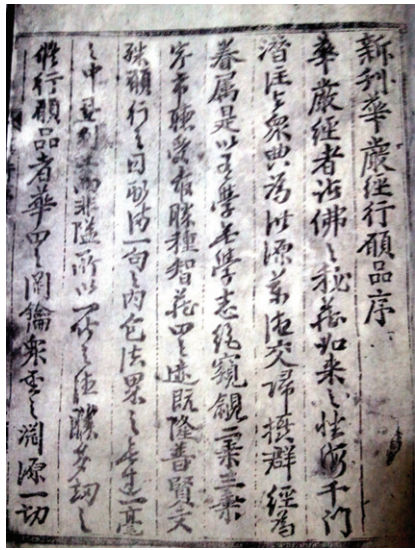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극락정토 이르길 바라는 마음

신간화엄경행원품서(新刊華嚴經行願品序)

어느 날 우연히 경매자료를 보다가 1736년 건륭(乾隆) 원년(元年) 병진(丙辰) 2월 경상도 대구 팔공산 동화사 개간(開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힌 고서 불경 한권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았다. 조선 후기에 동화사를 대표하는 고승 중 한 분인 기성당 폐선(箕城堂 快普; 1693-1764)이 쓰신 서문(序文)이 붙은 《화엄경》 권 40본의 입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入不可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었다.



기성당 폐선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품서

1631년 승정(崇禎) 4년 신미(辛未)년 여름에, 폐사됐다가 최근 다시 중창한 청도(淸道) 수암사(水岩寺)에서 개간한 《불설아미타경》의 도판(圖板)과 원문(原文) 사이에 ‘화엄경행원품’을 끼워 넣은 것이라 무척 특이한 경전이라고 생각했다.

#### 《화엄경》《아미타경》 합본

#### 폐선 스님의 정토사상이 담겨

책을 구입한 후에 살펴보니, 도판의 많은 부분이 삭은 데다, 박락(剝落)이 워낙 심해서 도판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리를 맡겨, 한 장 한 장 전부 배접을 하고, 표지를 매고, 표갑을 만들었다. 수리를 마치니 비록 상한 부분이 많을 지언정 훌륭한 모습으로 경전의 위엄을 되찾았다.

특이한 것은 《화엄경》 간기를 보니, 조선 후기 영남에서 가장 유명한 불화승(佛畵僧)인 금어(金魚) 의균(義均) 스님과 다른 불화승인 도일(道日)스님 같은 분들이 시주질(施主秩) 첫 부분에 이름을 올리고, 폐선 스님이 교정(敎正)을 봤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의균 스님은 보물 제1610호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탱화(阿彌陀會上帳幀)’를 그리고, 역시 보물로 지정된 ‘사명당대장’ 탱화를 그린 분으로 추정된다. 스님과 스님의 제자들이 당시 영남의 중요사찰들의 중요한 탱화들을 그렸는데, 이 간기가 의균 스님이 경전발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은 유일한 기록이다.

그러다가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불서(佛書) 전적류(典籍類)를 살펴보다가 똑같은 아미타경 화엄경 합

본(合本) 판본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이 합본경은 누군가 후에 서로 다른 두 권을 합본한 것이 아니라, 기성당 폐선 스님이 아미타경의 목판을 가지고, 화엄경 판본과 함께 인쇄, 발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서지학(書誌學) 사상(史上) 유일한 불경합본인 것이다. 폐선 스님은 정토신앙의 선(禪)적 수업을 실천 ‘정택법보은문(請擇法報恩文)’과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지으시고, 화엄학(華嚴學)을 공부하신 분이다.

스님은 왜 서로 다른 두 권을 합본해서 간행하셨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현행원을 닦는 이들은 마침내 해탈경계에 들어 깨달음을 얻고, 임종(臨終)시에는 아미타부처님의 마중을 받아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은(無隱) 대사는 “《화엄경》은 넓게 실한 《아미타경》이며, 《아미타경》은 요약한 《화엄경》이다”라고 말했다. 정토학과 화엄학은 같은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화엄경》의 정수(精髓)인 보현행원품과 《아미타경》을 함께 합본한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수행해서 진향(眞鄉, 극락)의 다른 이름에서 만나 고향친구가 되기를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제운 스님 시집발간 & 달마도 선묵전

4월 6일부터, 수행 40주년 기념...50여 점 전시

독특한 형식의 달마도를 그리는 양평 용문사 제운 스님(사진)이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를 출간했다. 스님은 4월 6-15일 용문사 인근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시집에 소개된 달마도 그림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마련한다. 특별전에는 달마도를 비롯한 수려한 풍광과 다산을 표현한 수묵 채색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차 문인화가다.

시집은 67편의 시를 4부로 나누어 구성됐다. 1부 ‘시집’이 지난 과거를 회상한다. 2부 ‘그리움’은 현재의 심정을 들어내는 것이다. 3부 ‘향하여’는 글자대로 미래를 향한다. 4부 ‘공문’은 선(禪)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선의 요묘함에 빠져들게 한다.

스님은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만 느껴지는 연인의 대상을 시로 노래한다.

“오늘도 늘 대하는 당신이지만/ 나에게 있어 당신은 늘 기다림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고 돌때면 멀어져만 갈 것을 나는 애대운답니다.// 함께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영원에 하나가 되어 머물지 못함에서// 나는 오늘도 가파른 외길 험로를/ 감사고듯 돌고 돌았습시다.//...”

제운 스님은 “인간은 과거를 갖고 현재를 산다. 현재를 사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기다림이 되고 꿈꾸는 행복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제운 스님은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2009) 《산사의 주련》(2009) 《내 마음의 이야기》(2007) 등 그동안 1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하고 개인 선화전시회를 개최한 시인

“나는 어느 때는 글을 쓰고 어느 때는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는 제운 스님은 유유자적하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이자 수행이다.

19세에 출가한 제운 스님은 40년 동안 수행하고 30여 년간 선묵화를 그렸다. 고승 경산(京山) 스님을 스승으로 품을 받아 정진하던 중 우연히 석도류이라는 미술평론가이자 동양서화학의 거목인 문인화가를 만나 문제를 익혔다. 1990년 예술대제전 초서 부문에 당선된 문인화가로 빛을 받기 시작한 스님은 서울 경인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제운 스님은 “화가는 인생을 화폭에 담고 시인은 인생을 노래한다”고 늘 말한다. 이번 시집에서 스님은 평소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수행자의 고뇌와 인간 행복추구를



무아 보라 자기 47x56cm(수묵채색화)

표현한 달마도를 수록했다.

“달마의 저술인 《혈맥론》을 보게 됐어요. 혈맥론의 견성사상에 정신을 집중하다 어느 순간 달마의 형상이 마치 물위에 뜬 달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달마를 그리게 된 동기가 됐죠.”

제운 스님의 달마 그림은 때론 스님의 자화상이 되기도 한다. 스님은 “달마를 그리다보니 달마는 항상 나의 그림자가 돼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운 스님은 “이번 선묵전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선시여행’에 그렸던 삽화들을 엄선하고 무아(無我)라는 시리즈를 중심으로 틈나는 대로 그린 그림들을 전시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이 이 한 권의 시집을 대하며 마음의 감성과 행복을 향한 한결음이 됐으면 하고 전시에도 참여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031)773-3797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경포의 이야기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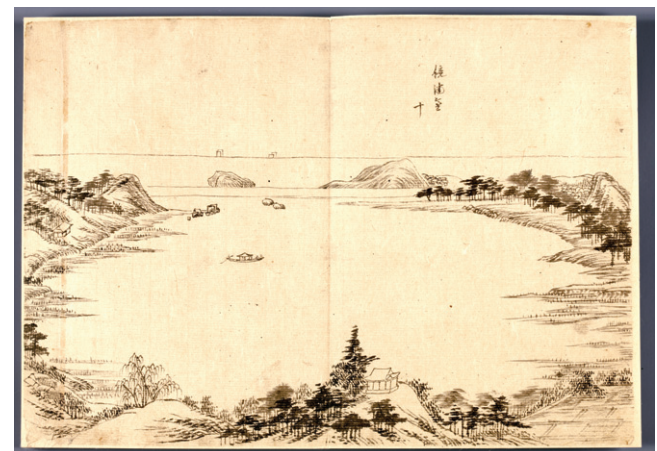
국립춘천박물관 ‘관공 제일 절경-경포대’ 5월 13일까지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재홍)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5월 13일까지 특별전 ‘관공 제일 절경-경포대’를 개최한다.

전시 1부에서는 모래톱이 바닷물을 가두어 생성된 아름다운 경포호와 누정의 역사, 그곳을 찾아가는 수많은 탐승객들의 여정과 감상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관동팔경의 승경을 표현한 그림과 경포호를 노래한 아름다운 시문 등 예술작품이 소개된다. 3부에서는 경포호에 깃들여 살던 사람인 당 모자, 허균과 난설헌, 김시습과 심언광, 선교장 등 호수의 물결과 바람 속에 성장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재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경포대를 소개하는 4부는 근대의 질곡을 겪은 경포호와 그 누정이 갖는 의미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포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요 유물은 김홍도 그림으로 전하는 《해동명산도》와 김시습 초상(보물제1497호)이다. 《해동명산도》는 정조의 어명을 받고 100곡의 그림을 그린 김홍도의 사경여행과 관련 있다. 또한 외가인 경포호숫가에서 쉴 곳을 찾았던 김시습의 초상은 생을 마감했던 부여 무량사



김홍도 그림으로 전하는 《해동명산도》중 ‘경포대’

유물로, 깨끗한 생육신의 기질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관동의 활발한 교류와 탐승의 결과물인 말안장, 강원도지도, 옛 선인의 풍류를 말해주는 바둑판 등 선교장 소장 유물도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한편,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의 주요한 문화 키워드인 관동팔경을 매년 한 곳씩 소개할 예정이다. (033)260-1500 이나는 기자

**건강방석**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분 \*오심, 구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생리통, 지방물, 주괴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 \*서늘-4월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 체질 개선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인공계좌 : 농협 170-12-056037 영재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메트, 오성건강, 오추메개등 자매포대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行孝 伏魔 靈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침 마감,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